

무주 ‘성현석성’, 신라시대 석축산성 확인

삼국시대부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확인… 전북 동부 삼국시대 각축사 연구 기초자료 확보

무주군은 최근 무풍면 현내리 산 26번지 일원에 위치한 ‘성현석성’의 시굴 조사를 통해 서쪽 성벽의 실체를 처음으로 확인하고 평탄지에서 건물지로 추정되는 구조를 발견하는 등 고고학적 성과를 거뒀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국립군산대학교 박박물관 발굴조사팀이 진행했으며, △성벽 구조 파악과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유산 지정, △역사문화권 보존·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다.

‘성현석성’은 성파산(해발 558m) 정상부를 한 바퀴 두른 테파식 석축산성으로, 둘레는 약 557m에 달한다. 성벽은 내측과 외측을 모두 쌓은 협축식 공법으로 축조했으며, 장방형 석재를 수평 줄창기 방식으로 사용한 특징이 있다.

이는 6세기 이후 신라 산성의 축성법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외측 성벽의 보축 시설과 다수의 신라 토기 편이 발견돼 ‘성현석성’이 신라의 ‘석축산성’임이 확인됐다.

‘성현석성’이 위치한 무주군 무풍면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신라의 무산현(茂山縣)으로 기록돼 있으며, 647년 백제와 신라의 격전지였던 ‘무산성 전투’의 역사적 무대로 주목받아 왔다. 무풍면의 동쪽을 휘감는 백두대간의 고갯길인 부항령과 덕산재는 백제와 신라를 이어주던 가교이자 접경지로서, 전략상 요충지였다. 이를 반영하듯 무풍면 일대에는 ‘성현석성’



성현석성 서쪽 성벽 조사 후 경경

외에도 철목리·현내리 고분군 등 삼국시대 유적이 밀집돼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무산성’의 실체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가야 멸망 이후 전북 동부지역에서 벌어진 백제와 신라의 각축 양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황인홍 군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무주가 삼

국시대부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확인했다”며 “무엇보다 ‘성현석성’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무산성’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등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 정비를 추진해 ‘성현석성’이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1593 전주별시 재현행사’ 22일 개최

과거시험·방방례·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진행

임진왜란 당시 임금인 선조가 나라를 구할 인재를 뽑기 위해 세자(광해군)를 전주로 보내 실시했던 과거시험인 ‘1593 전주별시’가 재현된다.

전주시는 22일 전주전통문화원수원과 경기전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제8회 1593 전주별시 재현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전주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부터 ‘1593 전주별시’ 재현행사를 이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과거시험(국궁(國弓), 한글 글짓기·산문/문문, 한시(漢詩)) △방방례(시상식) △급제자 유가행렬(遊街行列) △사은숙배(謝恩肅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궁(國弓)은 행사 당일 개인전(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중등부)과 단체전(초·중등 혼합팀)으로 나뉘어 대회가 치러진다.

한글 글짓기와 한시 지상백일장은 우편 접수를 통해 시고(詩稿)를 받아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사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과거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과거급제자에 대한 시상식인 방방례(放榜禮)가 진행된다.

시상식 이후에는 과거급제자가 어사화를 머리에 꿰고 채점관과 선배, 친족을 방문하는 전통인 ‘유가행렬(遊街行列)’이 전주전통문화원수원에서 시작해 은행로, 태조로, 경기전으로 이어진다.



경기전에 도착한 급제자들은 왕(태조어진)에게 과거 급제를 알리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은숙배(謝恩肅拜)’를 행하고, 다시 연수원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행사장에서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미니 맛 만들기 △전통차(茶) 즐기 △타본 체험 △한지 소원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권희성 기자

‘남원의 숨은 맛, 사람, 이야기를 잇다’ 미식로드 운영

남원시가 지역 교유의 식문화와 사람, 이야기를 잇는 특별한 미식 프로그램 ‘2025 남원 미식로드’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식 관광 활성화와 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의 숨은 미식 자원을 발굴하고 로컬 셰프와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기록 중심의 로컬 미식 프로젝트’로 기획되었다.

‘남원의 숨은 맛, 사람, 이야기를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미식 로드는, 지역 셰프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4개의 미식 여정으로 구성, 각 회차별로 소규모 인원을 모집해 남원의 숨은 맛을 체험하고 관련 관광자원과 연계한 현장 탐방을 함께 진행한다.

1회차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 첫 여정



의 문을 연 양재증 셰프는 오랜 기간 고급 일식집의 총괄 셰프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남원 산내면 중기 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발표식 품과 자신의 이름을 내건 어란 상품화를 선도하고 있다.

‘어란 미식 로드’는 송어알을 염장하고 말리는 어란 만들기 체험, 어란을 활용한 초밥, 떡,

파스타 등 요리 맛보기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운봉 고원의 하몽, 와인 페어링 미식 토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남원 미식의 진수를 선보였다.

△2차(11.11~12)는 사찰음식의 절제와 슬로푸드 철학을 배우는 ‘전통음식 체험로드’ △3차(11.20~21)는 천년의 맛을 재현하는 ‘고려만두 미식로드’ △4차(12.4~5)는 재래시장 장보기와 김장 체험을 결합한 ‘재래시장+김장로드’가 차례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각 회차별 체험 현장에서 직접 촬영·기록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SNS를 통해 남원의 맛과 사람, 이야기를 전하게 되며, 현재 3회 차까지는 신청 마감되었고, 4회차는 남원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남원시 미식로드’로 검색 후 11월 17일까지 큐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중국 갑오전쟁박물관 방문 교류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정읍과 청일전쟁(갑오전쟁)의 현장인 중국 위해시가 역사를 매개로 교류의 손을 다시 잡았다.

(사)정읍시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하 계승사업회) 회원 20명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위해시 갑오전쟁박물관 등을 방문해 민간 교류 증진 사업을 벌였다.

계승사업회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과 청일전쟁 패배의 아픔을 갖고 있는 위해시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한중 우호관계 확대와 학술교류를 이어나가고자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유공도 관리위원회, 갑오전쟁박물관, 계승사업회 측은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교류사업을 확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광대소고춤 공연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관용)은 오는 22일 오후 4시 열우마루 대공연장에서 성화정의 ‘광대소고춤 BEATS of History’ 공연을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사라진 전통춤인 ‘광대소고춤’을 다시 되살리고 새롭게 표현한 작품이다. 한 예인이 그 춤을 찾고,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았으며, 실제 기록 영상과 연희, 국악기 연주, 춤 등 다양한 전통예술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연희극이다. 전통무용수 문진수, 거문고 연주자 박소연, 배우 소중호, 댄서 이규혁, 그리고 연희자 한유진, 이지원, 서희연, 이상진, 최평강이 출연한다.

공연은 총 75분간 진행된다.

공연 관람은 무료며, 12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http://www.nihc.go.kr)에서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80-1500, 1501)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2부 ‘굿패와 무당’ (12)

한번 불어보거라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서울에서 했으면 아주 큰데서 했겠네요.”

“창경원에서 했어.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내가 그동안 굿판을 여러곳 다녔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굿판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니까. 뭐 미군들이 지원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심지어 김구 선생도 오셨다고 하더라고.”

“김구 선생님이요? 보셨어요?”

“아, 굿하느라 직접 보진 못했지.”

남준은 자신도 굿 치는 걸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나중에 아버지처럼 대화에 나가 큰 상을 받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절로 얼굴에 밝은 빛 같은 웃음이 둥그랗게 퍼졌다. 남준의 그런 마음을 아버지 강병도는 이미 알고 있었고 꾸준히 악기 연주법을 가르쳐 왔다.

타악기를 익숙하게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부는 악기도 잘 연주하는 것은 악사로서 중요한 덕목이었으므로 남준이 어렸을 때부터 강병도는 향피리나 세피리 연주법을 가르쳤다.

남준 또한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탓인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악기 연주하는 걸 받아드렸고 또 제법 그럴듯하게 다녔다.

가을결이가 끝나면 농한기에 접어들고 농민들의 걸음걸이도 잔걸음에서 팔자걸음으로 바뀌듯 굿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익년 정월까지는 한산해진다. 날이 점점 가을로 쪽 익어가는 무렵, 강병도는 남준을 불렀다.

“남준아, 톨을 들고 아버지를 따라오거라.”

“지게랑 낫도 가져갈까요?”

낫을 들고 오라는 건 톨기를 베려는 것인데, 남준은 겨울철 땀감을 하러 가는 게 아닐까 싶은 것이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씨리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보니 아버지의 옷차림도 일을 할 때 옷차림이 아니었다. 외구심 쉼인 표정을 하고 남준은 아버지를 따라나섰다. “오늘은 너에게 피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강병도는 미리 바둔 데가 있다며 남준을 데리고 마을 개천을 넘어 야산으로 올라갔다. 시누대나 조릿대라 부르는 마디가 긴 해장죽을 찾는 것이다.

남준은 아버지의 지시대로 적당히 자라고 가을을 뚝 깊숙히 담은 마디가 긴 조릿대를 몇 개 잘랐다.

전북자치도립미술관,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15~16일 이틀간 미술관 야외정원과 전시실에서 가을 정취 속에서 예술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관람객이 전시를 ‘보고’, 책을 ‘읽고’, 환경을 ‘돌보고’, 음악을 ‘듣고’,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일련의 경험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체험하도록 기획됐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시관람 공간을 넘어 ‘머무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하고자 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그림, 책, 정원’은 미술관 야외정원에 파라솔존과 빈백존을 조성해 관람객이 자유롭게 머무르며 전시 감상과 독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이어 ‘아트 플로깅’은 미술관이 자연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가치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미술관 주변에서 플로깅 활동을 진행한 뒤, 모아낸 들레길 초입에 폐기된 쉼터 목재를 활용해 협업으로 벤치를 제작한다.

마지막으로 ‘소리라 그리다’는 전시와 음악 감상의 조화를 통해 예술적 정서를 확장하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시실에서는 허산옥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한 ‘허산옥, 남쪽 창 아래서’展과 공모로 선정된 작가인 박경덕, 이을 작가의 ‘전북청년 2025:보이지 않는 땅’展이 함께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함께하는 우리’ 추진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 문화복지 실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동이 어렵거나 문화 접근이 제한된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로 모두가 연결되는 전주를 만들기 위한 전주문화재단 전주한백문화관의 공익사업이다.

올해는 △전주장애인복지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평화사회복지관 △화산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복지기관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 각

기관을 직접 찾아 전통문화 체험교육과 다양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문화 접근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복지기관과 예술단체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문화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백문화관운영팀(063-280-7082)으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